

LG화학, 양극재 50만톤 공급한다 美 GM에 2035년까지 '25조 규모'

전기차 약 500만대 이상 생산 분량 테네시 공장 2026년부터 공급 시작 "전략적 협력, 전기차 시장 주도"

LG화학이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M)와 25조원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한 LG화학은 GM과 함께 북미 시장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GM과 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2035년까지 최소 24조 7500억원 규모의 양극재를 GM에 공급한다.

양사가 거래할 양극재 물량은 50만톤 이상이 될 전망이다. 양극재 50만톤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50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22년 7월 양극재 장기 공급을 위해 포괄적으로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양사는 이번 공급 계약으로 협력을 강화하며 합의 물량 일부를 구체화했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본격 가동하는 2026년부터 GM에 북미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한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는 주로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



LG화학 테네시 양극재 공장 조감도.

LG화학

즈(Ultium Cells)에 쓰일 전방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GM과의 직접 계약인 만큼, GM의 다른 전기차 프로젝트에도 LG화학의 양극재가 사용될 수 있다. LG화학은 현지 공급망을 통해 GM 등 고객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2월 착공한 테네시 공장은 연간 6만톤의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테네시 공장은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LG화학은 소성 공정 설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해 라인당

연산 생산 능력을 1만톤까지 높일 예정이다.

제프 모리슨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담당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GM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LG화학과 함께 북미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인 GM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며 북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을 통해 LG화학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그레이트 챌린저' 첫 걸음... 성과급 개편

한화 RSU 전계열사로 확대 기업성장·주주가치 제고 보상

한화가 2024년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를 향한 첫 걸음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한다.

한화는 '책임경영·주주가치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RSU(양도제한조건 부주식)를 전계열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인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

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급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은 1990년대 미국 IT 기업들이 도입한 '스톡옵션'이 그 시작이다. RSU 제도는 '스톡옵션' 제도가 전문경영인이나 핵심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떡튀'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도입한 후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애경케미칼,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공략

철근 대체 합성수지 경쟁력 개선

애경케미칼이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면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일 애경케미칼에 따르면 국내 최초 페PET를 재활용한 친환경 가소제를 개발해 양산 중이다.

애경케미칼의 제품력은 최근 파트너 업체인 녹수가 애경케미칼의 가소제를 사용해 만든 바닥재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바닥재 전시회 'TISE 2024'에서 최고상인 'Best of Surface'를 수상하며 각광받기도 했다.

페PET를 재활용해 가소제를 만드는 방식은 국내 최초 사례로, 기술의 차별성과 제품의 우수함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국제 친환경제품 인증인 ISCC PLUS와 GRS(Global Recycled Standard)도 획득했다.

회사는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GFRP Rebar'의 필수 원료인 합성수지의 성능과 품질 개선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10월 GFRP Rebar 생산전문기업 KCMT와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표준 규격 구축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GFRP Rebar는 철근 대비 강도는 2배 이상 크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라 시공 및 운송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한 내부식성으로 녹이 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건축용 친환경 자재로 각광받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 제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AI 신사업 드라이브... 투자 확대

투자증가에 지난해 영업이익 7.7% ↓ 설비투자에 전년 대비 3.9% 늘어나 스타트업 '포티투마루' 100억 투자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전력료 인상과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여파로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다. 반면 매출액은 기업간거래(B2B) 신사업 매출 증가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회사는 가입회선이 크게 성장하며 통신 3사 점유율에 변화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해 신사업 수익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연간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14조 3726억원, 영업이익은 9980억원이라고 7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4% 늘었고 영업이익은 7.7% 줄었다. 연간 CAPEX(설비투자)는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지국 구축과 사이버 보안 투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9% 늘어난 2조 5140억원을 집행했다. 당기순손실은 6302억원이며 지난해 12월 기준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5195원으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가입회선 크게 늘어... 점유율 변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자사의 모바일 사업이 크게 성장하며 가입 회선이



LG유플러스 본사.

LGU+

늘었고, 이를 통해 통신 3사 점유율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디지털혁신그룹장은 이날 진행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모바일 사업은 견조한 성장 외에도 의미 있는 정성적, 정량적 성과를 거뒀다"며 "MNO(이동통신) 가입 회선이 크게 성장하면서 깨지지 않던 통신 3사 점유율에 처음으로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2023년 4분기 기준 매출만 보면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3조 820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매출도 3조 98억원으로 2.2% 상승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에 따른 비용 반영이 시작되는 등의 원인으로

로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1955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모바일 매출은 20% 이상의 무선 회선 수 증가, 5G 보급률 증대, 1%대 초반 해지율 기조 지속 등 2022년에 이어 질적 성과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2.0% 증가한 6조 3084억원을 달성했다. 접속매출을 제외한 무선 서비스매출은 2.6% 성장한 5조 9814억원이다.

MNO와 MVNO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 회선 수는 2509만 7000개로 전년 대비 26.1% 늘어나며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5G 가입 회선은 2022년에 비해 약 16.2% 늘어난 704만개를 달성했다. 핸드셋 기준 전체 가입자 중 5G 고객 비중은 64.3%로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며 모바일 사업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

솔루션 사업은 매출은 AICC, 스마트모빌리티 등 B2B 신사업 성과가 실적을 견인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한 5799억원으로 나타났다. IDC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3264억원이다. IDC 사업은 전력 절감 노하우 및 우수한 안정성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2023년 매분기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T, 기후변화 '리더십 A' 3년 연속 선정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선정

SK텔레콤은 글로벌 비영리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선정하는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등급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CDP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투자자를 대신해 전세계 주요 기업에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 전세계 금융

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한다.

CDP는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 3개 영역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전세계 2만 3200여개 참여기업 중 347개 기업(1.5%)이 '리더십 A'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총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SK텔레콤은 통신분야에서 유일하게 국내 CDP 참여 기업 중 3년 연속으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구남영 기자